

'무적함대' 스페인 우승후보 급부상



14일 열린 우크라이나전에서 스페인 선수들이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조별리그 1차전 종료 중간 성적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지난 10일(이하 한국시간) 화려하게 개막한 2006 독일월드컵축구 본선 진출 32국이 15일까지 조별리그 1차전을 모두 마무리했다.

A조의 개최국 독일과 폴란드만 2차전까지 치른 가운데 대회 첫 경기를 마친 8개 조의 중간 판도는 어떨까. 지난해 12월 조 추첨 때부터 1그룹에 포함되며 강력한 우승후보로 떠오른 8개 팀은 G조 프랑스만 제외하고 모두 1승씩을 챙겨 순조롭게 출발했다. 다만 화려한 득점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브라질이나 잉글랜드 등은 다소 실망스러웠고 독일도 수비에서 난맥상을 드러내며 우승후보다운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월드컵과 그다지 인연이 없었던 스페인을 비롯해 이탈리아, 멕시코 등은 "역시 우승후보"라는 감탄사를 나오게 해 기분 좋게 첫 발을 내딛었다.

▲스페인 '급부상', 잉글랜드·브라질은 '실망'

조 추첨 때 1그룹에 속했던 8개 국가 가운데 가장 화려하게 데뷔한 팀은 '무적함대'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14일 밤 라이프치히 젠트랄 슈타디온에서 열린 H조 1차전에서 우크라이나에 4-0 완승을 거뒀다. 슈팅수 19-5, 코너킥 7-1에서 드러나듯 스페인은 초반부터 화려한 개인기와 세밀하고 조직적인 패스워크로 중원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 '득점기계' 안드리 셉첸코(첼시)를 푼공 뒀다.

D조의 '북중미 맹주' 멕시코는 지난 12일 이란을 3-1로 제압해 자신감을 살렸고 E조 '아주려 군단' 이탈리아도 '검은 별' 가나를 2-0으로 완공, 아프리카 돌풍을 잠재웠다.

하지만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삼바군단' 브라질과 '축구중기' 잉글랜드, '레블리' 프랑스는 축구팬들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다. 브라질은 크로아티아와 F조 1차전에서 호나우두(레알 마드리드)와 아르리안뉴(인테르밀란) 투톱이 무기력한 플레이를 펼쳤고 카카(AC밀란)가 겨우 한 골을 뽑아내 1-0으로 이겼다.

B조의 잉글랜드도 파라과이와 1차전에서 경기 초반 데이비드 베컴(레알 마드리드)의 프리킥이 운 좋게 골문을 갈랐을 뿐 피터 크라우치(리버풀)-마이클 오언(뉴캐슬) 투톱이 이렇다할 활약을 하지 못해 역시 1-0으로

간신히 이겼다.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프랑스도 스위스와 1차전에서 지네딘 지단(레알 마드리드)이 노쇠한 데다 티에리 앙리(아스날)가 A매치에만 서면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0-0 무승부로 '아트스카'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프리카팀 첫 진출국 '이변'은 없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나 본선 첫 진출국의 돌풍이나 파란은 독일월드컵에서는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다. 기존 대회에서 아프리카 팀의 대표적인 돌풍은 1990년 이탈리아 대회 때 카메룬이 전 대회 우승국 아르헨티나를 꺾은 뒤 8강에 오른 것과 한·일 월드컵 때 세네갈이 전 대회 챔피언 프랑스를 제압하고 준준결승에 오른 것.

하지만 이번 대회에 출전한 아프리카 팀은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토고, 가나, 튀니지 등 5개 팀으로 이들의 1

브라질·잉글랜드 기대 못미쳐 1그룹 8팀 중佛제외 1승씩 챙겨 이변·역전승·무승부 거의 없어

차전 성적표를 보면 튀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2-2로 비겼을 뿐 다른 4개 팀은 4전 전패로 부진했다.

이들의 부진은 경험 부족이 가장 큰 과인으로 보이는데 특히 튀니지를 제외한 4개 팀이 모두 본선 첫 진출국이다 보니 자국 축구협회 지원이 극히 열약해 본선 준비가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또 본선 첫 진출국도 마찬가지로 큰 이변은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4개 팀을 제외하고 본선에 첫 진출한 국가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우크라이나. B조 최약체로 꼽혔던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바이킹 군단' 스웨덴과 1차전에서 득점 없이 0-0으로 비긴 것이 그나마 이변이라면 이변일 수 있다.

하지만 개막 전부터 북풍으로 골했던 우크라이나는 스페인과 1차전에서 상대의 무서운 공격력에 맥을 추지 못하고 4골이나 내주며 무릎 꿇고 말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4일 열린 스페인전에서 우크라이나의 블라디슬라프 비슈쿠가 심판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퇴장=패배' 각국 경계령

'퇴장은 팀 패배로 이어진다' 2006 독일 월드컵에 출전한 참가 선수들에게 퇴장 경계령이 내려졌다.

조별리그 17경기를 마친 가운데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는 모두 4명. 지난 13일 한국의 G조 첫 경기 때 퇴장당한 토고 대표팀의 주장 잠플 야오비 아발로(당케르

는 아니었다. '유럽관 한·일전'에서 폴란드는 상대전적 4무10패의 절대적 열세를 딛고 독일과 대등한 경기를 벌였으나 후반 30분 미드필더 라도스와프 소보레프스키가 파울을 범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흐름은 독일쪽으로 넘어갔다.

독일은 결국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울리버 뇌빌의 결승골을 앞세워 사실상 16강 진출을 확정했고 폴란드는 가장 먼저 조별리그에서 탈락의 분무를 삼켜야 했다. 폴란드 선수들은 경기후 '불공정한 레드카드가 패인'이었다며 심판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지만 이미 얼지른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17경기서 4명 '레드카드' 희생양

토고·폴란드 등 패배 빌미 제공

우크라이나도 수비수 블라디슬라프 비슈쿠가 0-2이던 후반 3분 문전으로 쇄도하던 상대 공격수 페르난도 페레스의 발을 거는 위험한 플레이로 퇴장당했고 0-4 대패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번 대회 퇴장 1호인 에이버리 존의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스웨덴과 0-0으로 비긴 걸 제외하면 퇴장이 나온 팀은 모두 패배했다.

'퇴장=패배' 방식식은 15일 독일-폴란드(A조)전과 14일 스페인-우크라이나(H조)도 예외

아니었다. '유럽관 한·일전'에서 폴란드는 상대전적 4무10패의 절대적 열세를 딛고 독일과 대등한 경기를 벌였으나 후반 30분 미드필더 라도스와프 소보레프스키가 파울을 범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흐름은 독일쪽으로 넘어갔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 C·D조 2라운드 경기 전망

'죽음의 조' 살아남기 환관 승부

▲C조 네덜란드-코트디부아르(17일 오전1시·슈투트가르트) 세르비아-몬테네그로와 1차전에서 영웅으로 떠오른 네덜란드의 아르연 로번의 활약이 관심사다. 1-0으로 이긴 1차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것을 비롯해 화려한 개인기와 돌파력을 자랑한 로번이 다시 한 번 코트디부아르 진영을 휘젓는다면 네덜란드는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는 게 가능하다.

특히 네덜란드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와 상대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16강행을 확정지으려고 총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디에고 드로그바를 앞세운 코트디부아르의 반격을 만만히 보지는 안된다.

아르헨티나에 1-2로 졌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그다지 밀리지 않았던 팀이 바로 코트디부아르다. '북병 1호'로 꼽혔던 코트디부아르로서는 이날 네덜란드를 잡지 못하면 더 이상 '북병' 노릇을 할 기회조차 없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멕시코 16강이나-아프리카 첫승이나

▲D조 멕시코-앙골라(17일 오전4시·하노이) 오마르 브라보가 다시 한 번 '브라보'를 외칠 수 있을까. 멕시코는 이란과 1차전에서 혼자 2골을 넣은 브라보의 상승세에 기대를 건다. 또 이란 전에 한 골을 보낸 163cm의 단신 미드필더 시나 역시 앙골라 전 활약으로 세계 축구사의 '단신 재간꾼' 계보에 이름을 올릴 태세다. 이에 맞서는 앙골라는 베팅 끝에 물러 있다. 포르투갈에 첫 판을 내준 앙골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다.

피구·파올레타 활약 여부 관심

▲D조 포르투갈-이란(17일 오후10시·프랑크푸르트)

지네딘 지단(프랑스), 호나우두(브라질) 등이 뚜렷한 노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1차전 좋은 활약으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던 루이스 피구의 존재가 포르투갈에는 든든하기만 하다. 유럽 지역 예선에서 11골을 넣어 득점왕에 올랐던 파올레타는 앙골라와 1차전 득점에 이어 이날도 골문을 열어 자국이 본선 득점왕까지 접수할 태세다.

그러나 매디 마다비카(함부르크), 페리돈 잔디(카이저슬라우테른), 알리 카리미(바이에른 뮌헨), 바히드 하세미안(하노이) 등 4명의 독일 분데스리가 소속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란의 저력은 한 번쯤 이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7.9 공무인 남경찰직 공인증개사
전남고시학원
www.dongnamschool.com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주)미양주박개발 TEL062-282-0606

전통의 맛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담양한과 061-383-8283

전립선 J2V
대전바이오메디칼 호남지사 1588-3871